

Effects of Communication Skills, Nunchi Skills, Major Satisfaction, and Metacognition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Mi-Ju Yang*, Tae-Hee Jang*, Jun-Gyo Lee*, Min-Hyeok Lee*, Yeon-Ji Lee*, Jung-Hee Park**

*Student, Dept. of paramedicine, Konyang University, Daejeon, Korea

**Professor, Dept. of paramedicine, Konyang University, Daejeon,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skills, Nunchi Skills, major satisfaction, and metacognition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from January 18 to February 1, 2025. Clinical practice stres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communication skills ($r = -.127, p = .049$), major satisfaction ($r = -.279, p < .001$), and metacognition ($r = -.127, p = .049$), with major satisfaction being the strongest predictor ($\beta = -.214, p < .009, 11.9\%$ variance explain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their major experience lower clinical practice stress, while indicating that clinical practice stress cannot be sufficiently explained by a single factor. Therefore, multidimensional intervention strategies, including programs to enhance clinical practice and major satisfaction, strengthened clinical instruction, peer interaction, and improvements in the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 **Key words:** Communication Skills, Nunchi Skills, Major Satisfaction, Metacogni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요 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만족도, 메타인지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25년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3, 4년제 대학의 보건계열 대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 결과 설문 참여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의사소통 능력($r = -.127, p = .049$), 전공 만족도($r = -.279, p < .001$), 메타인지($r = -.127, p = .049$)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중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beta = -.219, p = .010$)와 전공만족도($\beta = -.231, p = .006$)였으며, 설명력은 11.9%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음을 시사하며, 단일 요인만으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임상실습 및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실습 지도자의 강화, 학습 동료 간 상호작용, 실습 환경의 개선 등 다차원적 중재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보건계열 대학생,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만족도, 메타인지, 임상실습 스트레스

- First Author: Mi-Ju Yang, Corresponding Author: Jung-Hee Park
- *Mi-Ju Yang (yangmiju0109@naver.com), Dept. of paramedicine, Konyang University
- *Tae-Hee Jang (xxogml0415@naver.com), Dept. of paramedicine, Konyang University
- *Jun-Gyo Lee (minewnsry34@naver.com), Dept. of paramedicine, Konyang University
- *Min-Hyeok Lee (dlalsgur1738@naver.com), Dept. of paramedicine, Konyang University
- *Yeon-Ji Lee (emt_yeonji@naver.com), Dept. of paramedicine, Konyang University
- **Jung-Hee Park (jhpug@konyang.ac.kr), Dept. of paramedicine, Konyang University
- Received: 2025. 11. 11, Revised: 2025. 12. 17, Accepted: 2026. 01. 19.

I. Introduction

보건계열 학과는 졸업 후 즉시 임상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실무형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실무 중심의 임상실습 교육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교육부가 개정한 『대학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르면, 보건의로 분야 전공은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의무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 보건계열 대학생에게 임상실습은 단순한 교육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전공 관련 직무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역량과 특성을 파악하여 진로를 구체화하고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의실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제 임상 환경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낮선 실습 환경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실습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실습지도자의 높은 기대 수준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위축감과 긴장감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1]. 더 나아가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 다양한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실습 장소와 환경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실제 환자를 대면하며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도자나 동료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실습과정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동기부여와 개인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피로,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3], 나아가 전공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4]. 따라서 보건계열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으로[5], 특히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 형성, 실습 지도자와 및 조원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 해결 과정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6]. 임상실습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여 심리적 부담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실습 상황에 보다 윌

활히 적응하며,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실습에 대한 자신감과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개인 내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눈치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분위기, 처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으로, 사회적 민감성의 한국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7]. 선행연구에 따르면 많은 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낮선 상황에 적응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대처 기제로 눈치를 활용한다고 보고되었으며[8], 눈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9].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눈치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오히려 임상실습 중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보고되고 있어[9], 따라서 보건계열 대학생들에게는 눈치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색이 요구된다.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 정의 산물이다[10]. 높은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한 흥미를 촉진하고, 학업 및 실습 참여에 있어 심리적 안정감과 몰입을 제공함으로써 임상현장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한다[11]. 반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실습 과정에서의 좌절과 피로감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되며, 이는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공만족도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심리적 변수로, 그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사고과정에 대해 인식하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며 자신의 수행을 계획하고 점검하며 평가하는 능력이다[12]. 이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활용되며,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은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뛰어나 시간과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13]. 임상실습은 제한된 시간 내에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임상실습은 제한된 시간 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과정과 수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은 실습 중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 수준과 대처 전략을 인식하고, 필요 시 이를 수정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타인지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조절적 인지 요인으로서, 학습자의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만족도, 메타인지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임상실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II. Method of Research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만족도, 메타인지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Participants of the research

본 연구의 대상자는 3, 4년제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8일부터 2025년 2월 1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편의 표집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에 앞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설문 절차 및 소요 시간, 자료의 비밀 보장과 익명성 그리고 설문을 중단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는 온라인 설문지의 첫 화면에 제시된 연구 참여 설명문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의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15로 적용한 결과 172명이 적절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응답을 제출한 172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3. Research Tools

3.1 General Characteristics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교대 근무 형태, 임상실습시간, 임상실습 만족도, 대학 생활만족도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2 Communication skill

의사소통 능력 측정을 위하여 Rubin[14]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의 의사소통 능력 구성개념에 허경호[15]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 보완한 GICC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1)”에서 “아주 그

렇다(5)”까지 총 1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허경호[15]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9이었다.

3.3 Nunchi skill

눈치의 측정을 위하여 허재홍과 박원주[7]가 개발한 눈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1)”에서 “아주 그렇다(5)”까지 총 12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눈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허재홍과 박원주[7]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3.4 Major Satisfaction

전공만족도의 측정을 위하여 하혜숙[10]이 작성한 34개 문항의 학과 만족 도구 중 이동재[16]가 전공 만족 관련으로 문항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전공만족도’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본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1)”에서 “아주 그렇다(5)”까지 총 18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동재[16]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3.5 Metacognition

메타인지의 측정을 위하여 O,Neil[17]이 개발한 도구를 이순덕[18]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인식, 인지전략, 계획, 모니터링 4가지 항목 중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1)”에서 “아주 그렇다(5)”까지 총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메타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순덕[18]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2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7이었다.

3.6 Clinical practice stress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Back과 Srivastava[19]가 개발하고 김순례와 이종은[20]이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1)”에서 “아주 그렇다(5)”까지 총 24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순례와 이종은[20]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5이었다.

4. Data analysis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 만족도, 메타인지,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을 제어한 상태에서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 만족도, 메타인지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III. Research Results

1. Descriptive statistic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tudy variables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은 남자 54.7%(94명), 여자 45.3%(78명)으로 남자가 조금 더 많았으며, 나이에서는 21세 이하가 29.1%(50명), 22세에서 23세까지가 43.6%(75명), 24세 이상 27.3%(47명)이었다. 근무유형에서는 3교대가 66.3%(11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상실습 시간은 500시간 이하가 48.8%(84명) 500시간 이상 51.2%(88명)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 이하 47.7%(82명), 만족 이상 52.3%(90명)이었고 대학 생활 만족도는 보통 이하 30.8%(53명), 만족 이상 69.2%(119명)으로 나타났다. (Table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tudy variables

Characteristics		N (%)	M±SD
Gender	Male	94(54.7%)	-
	Female	78(45.3%)	
Age(Year)	≤21	50(29.1%)	22.80±1.74
	22-23	75(43.6%)	
	24≤	47(27.3%)	
Shift	Non-shift	45(26.2%)	-
	2-Shift	13(7.6%)	
	3-Shift	114(66.3%)	
Clinical practice time	<500	84(48.8%)	-
	500≤	88(51.2%)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Generally satisfied	82(47.7%)	3.52 ±.98
	Fairly satisfied	90(52.3%)	
University satisfaction	≤Generally satisfied	53(30.8%)	3.91 ±.91
	Fairly satisfied	119(69.2%)	

2. Differences in Clinical practic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교대 근무 형태, 임상실습 시간, 임상실습 만족도, 대학 생활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임상실습 시간($t=-2.508, p=.013$)과, 임상실습 만족도($t=4.046,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2).

Table 2. Differences in Clinical practic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M±SD	t or F (p)
Gender	Male	2.42±.75	-1.177 (.241)
	Female	2.57±.85	
Age(Year)	≤21	2.64±.85	1.654 (.194)
	22-23	2.38±.74	
	24≤	2.51±.83	
Shift	Non-shift	2.29±.75	2.039 (.133)
	2-Shift	2.63±.94	
	3-Shift	2.55±.79	
Clinical practice time	<500	2.33±.77	-2.508 (.013)
	500≤	2.64±.8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ied	2.74±.66	4.046 (<.001)
	Dissatisfied	2.26±.85	
University satisfaction	≤satisfied	2.63±.60	1.537 (.126)
	Dissatisfied	2.43±.87	

3. Correlation of Communication skill, Nunchi skill, Major Satisfaction, Metacognition on Clinical practice stress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의사소통 능력 ($r=-.127, p=.049$), 전공 만족도($r=-.279, p<.001$), 메타인지($r=-.127, p=.049$)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전공 만족도는 의사소통 능력($r=.322, p<.001$), 눈치($r=.358, p<.001$), 메타인지($r=.395,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r=-.279,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3).

4. Factor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의 분포 특성과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 값이 절대값 기준 ±2 이내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공차 한계는 .373~.839로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산 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VIF)는 1.241~2.678로 기준치인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884로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인접한 오차항의 독립성도 확인되었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근무형태, 임상실습 시간, 임상실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 1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3.150, p=.002$),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9%로 설명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beta=-.268, p=.001$)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제어한 상태에서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 만족도, 메타인지를 추가로 투입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 2의

설명력은 11.9%로 증가하였으며, 모델 적합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917, p=.001$). 구체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beta=-.219, p=.010$), 전공만족도($\beta=-.231, p=.006$)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전공만족도가 표준화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가장 강한 변수로 확인되었다(Table 4).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 Nunchi skills, Major Satisfaction, Metacogni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	Nunchi skills	Major Satisfaction	Metacogni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1				
Communication Skill	-.127 (.049)	1			
Nunchi skills	-.061 (.212)	.734 ($<.001$)	1		
Major Satisfaction	-.279 ($<.001$)	.322 ($<.001$)	.358 ($<.001$)	1	
Metacognition	-.127 (.049)	.629 ($<.001$)	.665 ($<.001$)	.395 ($<.001$)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Model	Model 1				Model 2			
	B	β	t	p	B	β	t	p
(Constant)	2.541		12.325	$<.001$	3.254		5.683	$<.001$
Gender(ref: male)								
Female	.089	.056	.652	.516	.104	.065	.770	.443
Age(ref: ≤ 21)								
22-23	-.113	-.070	-.719	.473	-.131	-.081	-.845	.399
24 \leq	.024	.013	.134	.894	.020	.011	.113	.910
Shift(ref: Non Shift)								
2-Shift	.316	.104	1.275	.204	.309	.102	1.241	.216
3-Shift	.157	.092	1.080	.282	.169	.100	1.174	.242
Clinical practice time (ref: < 500)								
500 \leq	.181	.113	1.402	.163	.140	.087	1.080	.282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ref: \leq Satisfied)								
Dissatisfied	-.430	-.268	-3.298	.001	-.351	-.219	-2.613	.010
Universal satisfaction (ref: \leq Satisfied)								
Dissatisfied	-.057	-.033	-.412	.681	.065	.037	.433	.666
Communication Skill					-.129	-.080	-.701	.485
Nunchi skills					.199	.136	1.161	.247
Major Satisfaction					-.242	-.231	-2.780	.006
Metacognition					-.051	-.039	-.372	.710
R ²	.134				.180			
Adjusted R ²	.091				.119			
F(p)	3.150($p=.002$)				2.917($p=.001$)			

IV. Discussion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만족도, 메타인지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별 의미를 고찰하고,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학문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임상실습 시간과 만족도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실습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실습 시간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학습 효과나 긍정적 경험으로 직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 시 실습 시간은 단순한 규정 준수 차원을 넘어, 학생의 학습 성과와 심리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습 만족도가 낮은 학생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관하는 형태의 실습을 경험하고 있으며[22], 이는 참여도와 성취감을 저하시켜 만족도를 낮추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무시나 소외당하는 경험, 반복적인 업무, 휴식 공간의 부족 등이 정서적 긴장과 신체·심리적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22]. 따라서 학생들의 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실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능력은 3.90점으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의 결과인 3.1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건계열 전공자들은 환자 및 보호자, 다양한 보건의로 전문가와 소통해야 하며, 특히 환자 맞춤형 관리와 교육이 주요 업무인 만큼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다[24]. 이에 따라 보건계열 대학에서는 이론 수업뿐 아니라 임상실습과 치료적 의사소통 교육 등을 통해 실제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임상실습은 다양한 상황에서 대상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사소통 기술을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학습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일반 대학생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눈치는 4.15점으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5]의 결과인 3.0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계열 대학생이 경험하는 임상실습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상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명확하지 않은 지시나 기대, 병원의 조직문화와 보건의료의 직종의 특성 속에서 실

수를 피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타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는 행동을 보이게 되며, 실습 중 상처받지 않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로 눈치행위를 활용하고 있다[26]. 이러한 반복적인 경험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눈치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보건계열 대학생이 일반 대학생보다 높은 눈치 수준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3.89점으로,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의 결과인 3.7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건계열 전공은 진로와 직업이 비교적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입학 전부터 뚜렷한 진로 목표를 세우고 자발적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공 선택 동기가 전공에 대한 기대감과 몰입을 높여 보건계열 대학생이 비보건계열 대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메타인지는 3.96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8]의 결과 3.5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메타인지는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학습 목표를 계획·점검·평가하는 능력으로[12], 보건계열 전공은 학업량이 많은 데다 이론 학습과 임상실습을 병행해야 하므로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기조절 전략이 필수적이다. Jang 등[29]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 시간이 누적되고 실습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메타인지 수준이 점차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로 실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메타인지적 전략을 활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메타인지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4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의 결과인 3.17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간호대학생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간호사 면허 취득 요건에 따라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하므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을 거라 사료된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양한 보건계열 전공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학과의 경우 실습 시간이 500시간 이하인 경우도 있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단순히 실습 시간뿐 아니라 실습 환경, 지도 방식, 학생의 준비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보건계열 전공별 특성과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의사소통 능력, 전공만족도, 메타인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전공만족도는 스트레스와 가장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 = -.279, p < .001$), 다른 변수들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진로 확신이 심리

적 안정감을 제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심리적 완충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확신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눈치의 긍정적 활용, 메타인지 증진으로 이어져 임상실습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눈치는 다른 변인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눈치가 타인의 요구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환경 적응을 돕지만, 과도할 경우 오히려 과민하게 반응하여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9]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임상실습 상황은 위계적 구조와 반복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환경으로, 높은 눈치 수준이 상황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눈치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단일한 보호 요인이라기보다, 개인의 성향과 맥락에 따라 상반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다면적 특성을 지닌 변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눈치는 의사소통 능력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r=.739, p<.001$)가 나타나, 보건계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치료적 의사소통 수행에 있어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결과는 상관관계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두 변인 간 개념적 유사성과 자기보고식 설문에 따른 동일방법편의로 인해 상관관계수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눈치와 의사소통 능력 간의 인과적 경로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1.9%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Choi의 연구[30]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실습 지도자의 피드백 체계 강화, 실습 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가 있다. 전공만족도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31]와 일치하는 결과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설계와 확신을 바탕으로 임상실습에 임함으로써 이에 따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서의 능동적 태도, 비판적 사고 능력, 올바른 상황 판단을 통하여 임상실습에 참여하므로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체 설명력이 12.2%에 그쳤다는 점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단일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보다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

에 의해 형성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 모형에서는 기존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완화 요인으로 다루어진 임상실습 환경의 질, 지도자의 지도 역량, 피드백 방식, 환자 및 동료와의 관계, 개인의 회복 탄력성 등과 같은 주요 변인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요인의 누락이 설명력 제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진행되어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즉, 만족도가 높아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임상실습 스트레스 경험이 전공 및 임상실습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켰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간적 선후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전공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기초 요인으로 설정하여, 임상실습 환경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자원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모형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실습 환경의 질이나 지도자의 지지 수준이 전공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하거나 매개할 가능성, 또는 회복탄력성과 같은 변인이 스트레스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발생 기제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Conclusion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만족도, 메타인지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의사소통 능력, 전공만족도,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은 전공만족도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공만족도 및 관련 요인의 강화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설명력이 12.2%로 나타나 전공만족도가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외의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보건계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보건계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습 환경, 개인적 특성 등 다양한 변인을 추가로 고려하여

설명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연구 대상의 지역과 전공을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RISE) program through the Daejeon RISE Center,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and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2025-RISE-06-001)

REFERENCES

- [1] Y. S. Song and J. Y. Le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2, pp. 157-166, May 2020. DOI: 10.5977/jkasne.2020.26.2.157
- [2] H. J. Park and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17-426, Dec. 2014. DOI: 10.14400/jdc.2014.12.12.417
- [3] N. R. Shin, H. J. Lee, Y. H. Kim, and J. H. Jeon, "The Effects of Stress, Stress Response, Grit, and Job-seeking Anxiety on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13, No. 2, pp. 115-125, Sep. 2023. DOI: 10.33502/JKSMH.13.2.115
- [4] M. K. Cho and H. Jeong, "A Convergence Study of the Effects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on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11, pp. 539-547, Nov. 2018.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18.9.11.539>
- [5] E. Y. Yeom,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4, pp. 320-330, Apr. 2017. DOI: 10.5392/JKCA.2017.17.04.320
- [6] Y. J. Kim and I. J. Jeon,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2, No. 3, pp. 297-308, Apr. 2018. DOI: 10.21184/jkeia.2018.4.12.3.297
- [7] J. H. Heo and W. J.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nchi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6, pp. 3537-3555, Dec. 2013. DOI: 10.15703/kjc.14.6.201312.3537
- [8] M. J. Kim and Y. Y. Seung, "The Perception-Coping Types of Initial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A Q 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 32, No. 1, pp. 105-118, Mar. 2014.
- [9] L. J. Kyung, "The Relationships among Clinical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 and Nunchi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Feb. 2015.
- [10]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Dec. 2000.
- [11] H. Y. Koo and H. S. Im,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 pp. 311-321, Jan. 2013. DOI: 10.5392/JKCA.2013.13.01.311
- [12] J. H. Flavell,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Cognitive-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Vol. 34, No. 10, pp. 906-911, Oct. 1979.
- [13] M. Y. Jho and M. O. Chae, "Impa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Metacognition on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513-522, Nov. 2014. DOI: 10.5977/JKASNE.2014.20.4.513
- [14] R. B. Rubin, "Communication Competence," in G. M. Phillips and J. T. Wood (Eds.), *Speech Communication: Essay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pp. 94-129, 1990.
- [15] G. 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 47, No. 6, pp. 380-408, Dec. 2003.
- [16] D. J. Lee, "The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in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Jun. 2004.
- [17] H. O'Neil, & J. Abedi,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state metacognitive inventory: Potential for alternative assessmen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89, No. 4, pp. 234-245, Mar.-Apr. 1996.
- [18] S. D. Lee, "Effects of scaffolding, metacognition and collaborative preference on problem-solving, collaboration load and knowledge sharing in blended collaborative learning,"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Gwangju, Aug. 2016.
- [19] D. L. Beck and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0, No. 3, pp. 127-133, Mar. 1991.
- [20] S. L. Kim and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1, pp. 98–106, Jun. 2005.
- [21] S. J. Kim, B. K. Park, C. H. Park, S. J. Jeon, G. I. Kim, and S. G. Kim, “A study on satisfaction investigation and current status of clinical training program for healthcare-affiliated students depends on university hospital avail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6, No. 1, pp. 195–203, Mar. 2012. DOI: 10.12811/kshsm.2012.6.1.195
- [22] S. G. Shin and H. Y. Lee, “Ways to reduce clinical practice stress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8, pp. 266–274, Aug. 2013. DOI: 10.5392/JKCA.2013.13.08.266
- [23] S. J. Lee, Y. K. Chang, H. N. Lee, and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p. 74–90, Jan. 2003.
- [24] Y. J. Oh,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theory of transfer of learning,”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2008.
- [25] S. H. Kim, S. H. Park, and M. J. Baek, “Mediating effects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nunchi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ovisional Nursing History and Management*, Vol. 30, No. 1, pp. 1–8, Mar. 2021. DOI: 10.12934/jkpmhn.2021.30.1.1
- [26] H. J. Park and H. J. 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nunchi in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5, No. 1, pp. 48–57, Feb. 2019. DOI: 10.5977/jkasne.2019.25.1.48
- [27] C. J. Jeong, H. S. Yang, Y. D. Yoo, H. J. Kang, and M. K. Kim, “A study on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stress among health and non-health department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C-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s*, Vol. 20, No. 1, pp. 13–24, Jun. 2023.
- [28] S. Y. Kim and H. J. Byun,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s on undergraduates’ character development and metacogni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6, No. 3, pp. 63–80, Jul. 2015. DOI: 10.16881/jss.2015.07.26.3.63
- [29] K. A. Jang and H. K. Kang, “The effect of dental hygiene process in a university on metacognition level,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8, No. 2, pp. 1–7, Jun. 2020. DOI: 10.33615/jkohs.2020.8.2.1
- [30] E. S. Choi, “The effects of college life stress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mental fitness of paramedic students,”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9, No. 1, pp. 153–167, 2025. DOI: 10.14408/KJEMS.2025.29.1.153
- [31] H. J. Heo and Y. S. Song, “The effect of verbal viol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ping with stress on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9, No. 2, pp. 190–198, May 2023. DOI: 10.5977/jkasne.2023.29.2.190

Authors



Mi-Ju Yang has been an undergraduate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Paramedicine at Konyang University since March 2022. Her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saster Medicine and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Tae-Hee Jang has been an undergraduate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Paramedicine at Konyang University since March 2020. His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saster Medicine and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Jun-Gyo Lee has been an undergraduate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Paramedicine at Konyang University since March 2023. His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saster Medicine and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Min-Hyeok Lee has been an undergraduate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Paramedicine at Konyang University since March 2021. His main research interest is Advanced Trauma Life Support.



Yeon-Ji Lee obtained a Bachelor’s degree in Paramedicine from Konyang University in February 2018. She is currently pursuing a Master’s degree in Paramedicine at the Graduate School of Konyang University since March 2024. Her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saster Medical Services and Advanced Trauma Life Support.



Jung-Hee Park obtained a Master’s degree and a Ph.D. in Public Health from Konyang University in 2006 and 2016, respectively. Dr. Park joined the Department of Paramedicine at Konyang University in 2017 and is currently serving as an Associate Professor. Her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Nursing Management, Patient Safety, and Public Health.